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다

자폐성장애 현정이 꿈담은 전시회 열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전시회가 열렸다. 학교 체육관, 학교 강당이 아닌 어엿한 갤러리에서다. 70여점의 작품이 걸려있는 전시장에는 꾸준히 발걸음이 이어졌다. 오히려 유명 작가의 전시회보다 많이 느껴지기도 했다. 기교가 없는 그림이지만 형태묘사나 선의 흐름에는 어색함이 없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뻗어나간 선에 정직함이 묻어있는 소녀의 그림은 여느 작품과는 다른 느낌으로 가슴속에 파고든다.

미술에 천재적 소질로 각광 받고 있는 소녀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폐성장애를 가진 16세 김현정양의 전시장 풍경이다.

'현정의 특별한 일상-자폐성장애를 가진 16살 현정의 꿈이 담긴 첫 번째 전시 이야기'. 그곳에서 사람들은 현정의 일상을 보았고, 꿈을 보았다. 그리고 현정의 장애를 생각하게 되었고, 현정을 응원하게 되었다.

4월 20일부터 11일간 '문

화공간 제주아트'에서 열린 '현정의 특별한 일상'전은 어머니 홍인실씨와 5년째 현정의 그림지도를 맡고 있는 화가 김형지씨가 기획했다.

김형지씨는 "현정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과 가족들에게 '한계는 없다'는 희망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싶어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제주문화포럼 하순애 원장이 흔쾌히 전시장을 무료로 대관해 주면서 전시회가 성사됐다.

이번 전시회는 현정의 꿈만을 위한 전시회는 아니었다. 전시를 통해 자폐성장애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장애를 가진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자리였다.

홍인실씨는 "현정의 특수한 상황은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무언가 익히는 일도 정상인의 100배의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며 "일상의 당연한 것들이 희망을 낳는 기쁨이 되어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정이 그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하다는 어머니. 어머니는 "전시회를 통해 현정이 친구들이 현정의 마음을 좀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점이 가장 뿌듯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예술은 양식, 기교를 통해서 미를 창조하는 작업 혹은 결과물이기 이전에 한 인간의 삶이 배어있는 '표현'의 한 방식이다. 예술은 방식을 떠나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은 영혼을 치유

할 수 있는 신비한 마법과 같다'는 말은 '소통'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고 성숙해 간다는 뜻일 것이다. 결국 예술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예술은 일반적인 의사표현방식을 뛰어넘어 보다 효과적인 소통을 끌어낼 수 있다.

'현정의 특별한 일상'전은 순수한 한 소녀에게는 꿈에 한발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의 시간이 되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467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금수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노인가구는 74만원 이하, 부부노인가구는 118만 4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연금수급액은 단독노인가구는 2만~9만1200원, 부부노인가구는 4만~14만5900원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의 경우 생일 2개월 전에 신청해야 자산조사 등 선정절차를 거쳐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46년 5월생인 경우 6월에 신청하면 5월에 해당하는 연금은 받지 못한다. 특히 지난 3월말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으로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연금이 지급된다.

한편 3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4만6003명에 115억 300만원이 지급됐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
시설 탐방-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 사회복지소식 4·5면
장난감도서관·소식마당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장애인정책기본법 제정 토론회

UNESCO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제주사랑! 투표로 보여주세요.

※문 자 : 001-1588-7715 로 제주 또는 jeju, JEJU 전송

※전 화 : 001-1588-7715 연결 후 한국어 안내에 따라 투표

※인터넷 : www.N7W.com (투표방법→제주도 홈페이지 참조) ※투표마감 : 2011. 11. 10



△ 4월 27일 제주시 산지천분수대에서 일원에서 열린 제4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소망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4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식 열려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27일 제주시 산지천분수대 일원에서 제4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08년 4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선포한 후 네 번째 열리는 행사로, 기념식과 가두캠페인(산지천분수대→중앙로타리→제주목관아), 아동학대 추방 서명운동 등이 열려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에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아동학대 추방의 날 메시지를 통해 “아동들을 지켜주고 꿈을 꽃피

울 수 있도록 ‘안전한 텃밭’을 일구는 일보다 우리 제주사회의 더 큰 일은 없다”면서 “아동학대가 없는 건강한 제주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꽃과 싹이 어우러진 생명의 계절에 우리 어린이들의 싹의 꿈도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다”며 “우리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제주사회의 새싹들을 밝고 구김살 없이 키워가는데 힘을 한데 모아 나가자”고 했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전후해 도내 곳곳에서는 거리캠페

인, 사생대회, 아동학대사례 사진전 등 다양한 아동학대 추방 캠페인이 진행됐다. 오는 20일에는 유정은 아동인권센터 소장을 초청해 아동인권보호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한편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50건이며, 이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26건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전체 126건 중 중복학대가 61건(48%), 단일 유형 중에선 방임이 36건(29%)으로 가장 높았다. 또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한 사례가 102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2011 청소년문화존 상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불교청소년연합회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2011 청소년문화존(zone) 개회식’ 및 ‘청소년 끼 경연대회’를 4월 23일 산지천문화예술마당에서 개최했다. 청소년문화존은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월 2회 산지천문화예술마당에서 각급 청소년 동아리 단체와 학교 동아리에서 신청한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10월까지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문화적으로 소외돼 있는 동·서부 읍면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존’을 2회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청소년문화존 모니터링 활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현장에서 문제점 등을 객관적인 시각과 청소년의 눈높이로 파악해 분석한 후 개선해 내년부터는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공연과 체험마당 등 다양한 문화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문화존 사업은 청소년단체와 학교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재능과 소질을 선보이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21회 공연에 1만5500명이 참여해 학부모와 청소년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장애체험·자원봉사교육 실시

제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수연)는 화북초등학교 3~5학년 436명 등 4개 초·중·고등학교 60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장애체험 및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휠체어체험과 흰지팡이체험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학교·병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학교와 병원,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2008년 4월 11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4월 11일부터 교육기관,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 병원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기관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으로 제한됐던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가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학교로 확대됐다. 교육보조인력 배치와 이동용 보장구 장비 등도 제공해야 한다. 또 의료법상 병원과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 수화, 점자자료 등 필

요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고용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근무시간 변경 또는 조정, 훈련 보조인력,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주시는 대상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과 지도를 통해 이행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2011 사랑의 사진 공모전...15일까지 접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의 소리와 함께 사랑이 담긴 사진을 공모한다.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주제는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진 그리고 이야기’다. 가족, 친구, 스승 등에 대한 사랑이 담긴 내용이면 가능하다. 오는 15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패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금상과 은상, 동상, 입선작에도 상패와 상품권이 주어진다. 응모작 중 일부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홍보책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747-3273~4(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711-7021(제주의 소리).

서귀포시, 사랑나눔 행복카드제 확대

서귀포시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목욕업소와 연계해 요금을 할인받거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4월 1일부터 사랑나눔 행복카드제 참여업소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자발적인 참여업소를 신청 받은 결과 이용업 34개소, 미용업 42개소, 목욕업 24개소 등 모두 100개업소를 지정했다. 또 서귀포시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아동,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643명

에게 사랑나눔 행복카드를 발급했다. 소년소녀가장과 조손가정 아동 등 11명에게는 연노란색의 무료 이용카드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632명에게는 할인카드가 발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수혜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미만 1급, 신장 2급 장애인’ 240여명도 사랑나눔 행복카드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참여업소에 대해 평가를 통해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사회복지협의회 2011년 3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890,000	890,000
난치병환아후원	90,000	0
자원봉사후원	405,000	405,000
복지사업후원	1,180,000	474,000
푸드마켓후원	1,630,000	452,02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시 100세 이상 장수노인 65명

110세 신행년 할머니 최고령

제주시에 살고 있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39회 어버이날을 앞두고 3월말 기준 100세 이상 노인을 파악한 결과 총 65명으로 집계됐다. 남자는 3명, 여자는 62명이다.

이는 지난해 8월말 58명에 비해 7명이 증가한 것이다.

장수노인 중 최고령자는 한림읍 한림리 신행년 할머니(110세)이고, 뒤를 이어 삼양동 고성옥 할머니(107세), 한림읍 수원리 정유현 할머니(106세), 봉개동 김경숙 할머니(106세) 순이다. 남성중에는 삼도2동 이운방 할아버지(102세)가 최고령자로 파악됐다.

장수노인을 읍면동별로 분석한 결과 읍·면 지역에 32명, 동 지역에 33명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수로 볼 때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 장수노인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읍·면의 경우 한림읍이 12

명으로 가장 많고, 구좌읍 7명, 애월읍 5명, 조천읍 4명, 한경면 3명, 우도면 1명이다. 추자면에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 지역은 일도2동이 7명으로 가장 많고 화북동 5명, 노형동 4명 등이다.

특히 읍·면 장수노인 32명 가운데 바닷가를 낀 해안마을이 27명으로 중산간마을 5명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철수 사회복지과장은 "제주시가 전국에서 인구수 대비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가장 많다"면서 "청정한 바다와 깨끗한 공기 등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야채와 해산물 섭취, 근면한 생활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게 장수비결 요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한국보건복지학회장 김종인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제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0세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발표된 바 있다.

도, 여성발전기금 2억 47개 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8개 분야 47개 사업에 총 2억 2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 신청한 52개 사업을 대상으로 4월 4일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창의성 ▲사업추진 능력 ▲예산의 적정성 등 5개 항목을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심의해 47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심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5개 사업은

제외됐다.

분야별 지원사업을 보면 ▲여성 아동 안전한 사회 만들기 5개 사업 2300만원 ▲녹색생활실천 7개 사업 2300만원 ▲남녀평등촉진 2개 사업 900만원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7개 사업 3700만원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저출산 대응 1개 사업 300만원 ▲장애 여성 및 다문화 등 소외계층 권익신장 및 복지지원 17개 사업 6400만원 ▲성폭력·성매매예방 1개 사업 1000만원 ▲기타 여성발전전에 기여하는 7개 사업 3300만원이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제주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등급에 제한 없이 지원되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임신 6개월 이후 사산할 경우 지원된다.

출산일에 해당하는 연도에 출산지원금 신청서, 복지카드 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사산사실확인서 등을 갖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중증장애인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수급권자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지난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제주시지역 여성장애인은 29명이며, 올해는 3월까지 6명이 지원받았다.

제주시는 이 시책으로 여성장애인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환경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여성장애인의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장애아동의 행복한 삶 구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던 4월 하순,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이하 장애인부모회)를 찾았다.



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연한 권리를 자연스럽게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뜻을 모아 2000년 7월 설립했다.

한봉금 회장은 "우리 애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면 부모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 초기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권익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다. 그릇된 편견에 맞서야 했고, 부모들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50여 가족에 불과했던 회원이 10배가 넘는 570여 가족으로 늘었다. 회원 대부분은 지적장애 혹은 자폐성장애, 뇌병변 등 중증장애인 가족들이다.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시작한 중증장애인가정 도우미 지원센터는 2006년부터는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도우미가 가정 혹은 학교를 방문해 장애아의 치료교육을 위한 이동을 도와주고, 사회적응 훈련지도 등을 담당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면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400가정이 이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제주도)의 지원을 받았으며, 다른 지역의



한봉금 회장 "내년 전문 서비스 제공 공간 마련"

벤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강경균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 자녀로 인해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부모들이 긴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도우미 자질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개 전문적인 치료·서비스 기관과 함께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에서 2~6만원만 부담하면 월 8회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읍·면지역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아동복지지

원법 제정 등을 위한 정책제안사업, 장애인주말학교 등 장애인사회통합사업,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 회장은 "예전 장애인 부모들은 애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으나 이제는 장애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며 "이런 일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애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결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장난감 갖고 놀며 배워요” 아이들 방긋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 운영

“우와~장난감이 엄청 많아 요! 여기서 친구들과 함께 장난감으로 재밌게 놀 수 있어서 너무 신나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 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이 신세계그룹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한 아이의 말이다.

놀이시간은 아이들이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놀이는 아이들의 일이다. 즉,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신세계그룹 지원을 받아 제주 시내 저소득 일반가정 아동이 교육·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 집단간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창의력을 개발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혹시나 우리 아이가 다양한 놀이감을 접

해보지 못하진 않을까?’라는 조바심에 두 눈을 질끈 감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감들을 안겨주곤 한다. 하지만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고민을 덜 수 있다.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 장난감도서관 회원이 되면 장난감을 빌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으며 동시에 부모교육, 오감발달통합놀이프로그램, 장난감 DIY 등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계층은 이용료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장난감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이용해 본 부모들은 “요즘 장난감 가격이 매우 비싸 부담되고, 값비싼 장난감을 사줘도 금방 싫증내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장난감을 부담없이 빌릴 수 있고 여기서

놀 수도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엄마는 “조작활동이라 지루한 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율동, 노래와 같이 접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됐다”며 “조작 능력뿐만 아니라 색이나 숫자 등을 적절히 다루는 통합적인 수업이어서 알차고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담당 김파란 사회복지사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발맞춰 아이들이 장난감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에 대한 각종 정보교환과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753-2740, www.childfund-jeju.or.kr. <김홍철 명예기자>



제주모금회, 최우수지회 선정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사진)는 2010년도 16개 시·도 공동모금회 지회평가에서 최우수 지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0년 지회별 모금, 배분, 조직운영에 대한 총 23개 지표로 이뤄진 평가에서 제주모금회는 각 지표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모금회는 매년 지회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죽원, 10주년 기념행사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3월 24일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행사에는 박규현·박희수 도의원, 박광수 한국장애인시설복지협회 제주도협회장이 참석해 개원 10주년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한결같은 사랑으로 꾸준히 봉사를 실천한 손끝사랑 발끝사랑, 김상순씨, 뷰티봉사회에 표창패를 수상했다.

김금자 원장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앞으로도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위해 같은 눈높이에서 장애인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4월 식품기탁자

-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16kg ▲서문식품=두부 384모, 콩나물 160봉 ▲김치원=김치 60kg ▲푸른축산물판매장=돈육 10kg ▲유진상사=식재료 885개 ▲이어도지역자활센터=채소류 120kg ▲아산재단=쌀 200kg ▲고영태=감 600kg ▲양하나=생필품류 38개 ▲CMS 후원자=202명 169만원

소/식/마/당

4기 빛누리실버연극단 발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4월 13일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연극문화증진,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연극단 ‘4기 빛누리실버연극단’ (연출 김광흡) 발대식을 가졌다.

연극단은 다음달까지 연극연습을 진행하고, 오는 10월까지 총 11회 찾아가는 무료 연극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청소년 복지발전 협약 체결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4월 7일 지역내 청소년의 복지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연계기관인 아라중학교(교장 진영부), 신성여자중학교(교장 남승택), 제주여자중학교(교장 장철준)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들이 모색됐으며, 지역내 청소년들을 위한 연계사업에 대한 논의도 했다.

발도장 쿵쿵 프로그램 진행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제주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4월 9일 ‘발도장 쿵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발도장 쿵쿵’은 올레길 체험을 통해 건전한 건강한 여가·문화생활의 기회제공과 올레코스 완주를 통한 목표의식과 성취감·자아존중감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레길 11코스에서 실시됐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에코소랑개원



사회복지법인 정혜원(이사장 이흥기)은 3월 26일 김용범 도의원, 복지시설 대표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근로사업장 에코소랑 개원식을 가졌다.

사랑의 메아리라는 의미를 지닌 에코소랑은 서귀포시 최초의 중증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써 기존 화장지보다 업그레이드된 친환경 화장지를 생산하고 있다.

한리산 자연체험프로그램 실시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4월 9일 생활인들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의 소중함 및 정서순환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리산 자연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리산국립공원 자연해설가들의 도움을 받아 야생화 관찰, 야생화이름 알아보기, 야생화그리기, 탐라 계곡 등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열려



제주시정신건강센터(센터장 박준혁)는 정신건강의 날(4월 4일)을 맞아 4월 8일 제주MBC와 함께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 등이 진행됐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주제로 건강강좌가 열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했다.

장애인재능 뽐내는 소통의 장

2011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작품전시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박광수)는 4월 27일 '2011년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공연과 창작을 통해 장애인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끼를 발산해 자긍심을 높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전공연, 개회식,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체험의 장, 어울림의 장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창암재활원, 제주장애인요양원 등 18개 시설의 장애인과 부모, 자원봉사자 등 1100여명이 참석했다.

예능발표회에는 태권도, 댄스, 국악 등 11개팀이 출연해 그 동안 틈틈이 갈고 닦은 재능을 뽐냈고, 체험의 장에서는 풍선아트, 염색손수건 만들기, 떡꼬치만들기, 화분심기, 팝콘튀기기, 플라잉디스크 미니축구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돼 장애인들이 직접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노래자랑에는 13개팀이 참가해 노래솜씨를 맘껏 자랑했으며, 행사장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박광수 회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끼와 열정을 마음껏 표출하는 소통의 장이자 잔치"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전국 축구대회 2년 연속 준우승 '쾌거'

제주도사회복지사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회협회(회장 한형범)는 사회복지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4월 15~16일 이틀간 열린 제5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축구대회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8강전과 준결승에서 경기도와 강원도를 꺾고 결승에 오른 제주팀은 경상북도에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제주팀은 지난해에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고봉운 사회복지사

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한형범 회장은 "이 대회의 우승팀이 다음해 개최지로 선정되는 만큼 내년에 경상북도에 치러지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전국 대회가 제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기념식에서 '제주도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투표 참여 이벤트'를 실시해 전국 16개 시·도 선수단과 전라북도 사회복지 유관 기관 800여명이 투표참여를 결의했다.

"오감으로 자연을 느껴요"

청소년지도사회, 숲기행 실시

제주청소년지도사회(회장 강철남)는 4월 9일 청소년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세계 속 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오감으로 느끼는 숲 기행'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청소년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남시험림에서 실시됐다.

프로그램은 숲 생태 체험 및 뱀눈으로 하늘보기, 사려니 오름 등반, 나뭇잎 탁본 뜨기 등 다채롭게 운영됐다.

특히 전문 숲 해설가의 설명이 더해져 참가자들이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

청소년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은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과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청소년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운영·관리하고 있다.

한편 제주청소년지도사회는 2003년 청소년지도사 250여명이 결성해 각종 세미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활동, 건전프로그램 개발·시행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1 하늘이의 봄나들이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영)은 4월 16일 입소 장애인과 직원,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늘이의 봄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로케이드월드를 방문해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봄의 따스한 기운은 물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도 함께 느낄 수 있어 더욱 더 즐겁고 뜻깊은 행사가 됐다.

로케디오월드와 손뚝모아봉사회, 그린사랑나눔회, 한울봉사회, 헌사모봉사회 등에서 행사 진행에 많은 도움을 줬다.



2011 자원봉사리더아카데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4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 지도자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확대와 기관·단체 교육증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2011 자원봉사리더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제주요양원, 음악치료 프로그램 진행

노인의료복지시설 제주요양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음악치료 프로그램 '함께 연주해요! 쿵쿵따, 쿵쿵따~'를 주 3회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거나 자신에 맞는 악기를 사용하는 크고 작은 활동을 통해 잔존능력을 발휘하며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료 효과를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희망네트워크 동지 '희망바라기' 발대식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3월 28일 꿈을 담은 환경희망네트워크 '동지' 2기 운영회 '희망바라기' 발대식을 가졌다.

'희망바라기'는 제주도 환경면에 거주하고 있는 심리·정서·신체·학업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동지'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교사와 공무원, 경찰관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 10월부터 '동지' 사업



을 통해 통합적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주민 조직화 운동을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전개하고 있다.



조손가정학생 지원 협약

성안복지재단-제주시교육청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이사장 고치웅)은 조손가정지원센터를 조직, 조손가정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월 8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과 협약식을 체결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 50가정을 선정해 내년 2월까지 1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안복지재단 조손가정사업지원센터는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선정된 대상학생의 가정을 방문해 학생들의 정서적 상황 및 조부모의 건강상태, 주거환경개선 여부 등 자세한 생활 실태 파악을 실시했으며, 그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으로 개인별 학습지도, 월 생계비 혹은 장학금 지원, 주거환경개선, 정서적 지원 등 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안복지재단 조손가정사업지원센터는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선정된 대상학생의 가정을 방문해 학생들의 정서적 상황 및 조부모의 건강상태, 주거환경개선 여부 등 자세한 생활 실태 파악을 실시했으며, 그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으로 개인별 학습지도, 월 생계비 혹은 장학금 지원, 주거환경개선, 정서적 지원 등 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칼럼

지진이 나면 아빠는 어떡할 거죠



고 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잠자리에 들기 전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머뭇거리면서 물었다. “아빠, 지진나면 어떡해, 아빠는 장애인인데.” 내가 머뭇거리는 사이 질문이 이어졌다. “아빠가 가족을 구할 수 있어?” 나의 대답은 완벽했다. “걱정마라, 아빠가 가족을 다 구할 거다. 지진을 생각해 무너지지 않게 설계된 집으로 이사 왔잖아, 가족이 피할 곳도 다 생각해 봤어.”

대형재난시 장애인 안전 의문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를 텔레비전에서 본 딸이 불안감에서 미답지 못한 아빠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당당히 말할 아빠이지만 장애3급의 현실에서 지진이 나면 과연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일본의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로 집과 자동차가 순식간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

서 그 와중에 장애인들은 꼼짝없이 희생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제주에도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26회 정도 지진이 발생했고 해마다 적게는 2회, 많게는 7회 정도 발생했다. 이중에 전등이 흔들리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도3 이상도 6건이 된다. 진앙지가 바다여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주가 ‘지진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지진대응능력인데 도내 공공시설 1만 3천여개소 중 9천여개소인 68%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학교의 경우는 더욱 열악한데 90%가 되어 있지 않다. 도내 재해위험지역의 대피장소는 40개소가 있는데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피소가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더욱 문제는 내 동네의 대피장소가 어딘지 모른다는 것이다.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대피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보면 아마도 수화통에 답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제주도의 지진대응의 현주소이다. 이런 와중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특별한 안전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재해위험지역의 마을에는 8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에

재해발생 시 신속히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290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보면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을 먼저 구조하라고 되어 있다. 이는 국민행동요령이고 행정의 행동요령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예고 없는 응급한 상황에서 질서 있는 시민의 식과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재해예방·대응책 재정비 필요

하지만 그 전에 안전에 취약한 계층현황을 미리 확보하여 위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방적 차원에서 주거생활 점검을 비롯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7년 제주도를 강타한 태풍 ‘나리’때 조천에 사는 시각장애인부부가 온통 불고 있는 물에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다. 시각장애인부부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는가.

장애인들은 재해에 취약하다. 장애로 인한 불가항력을 최소화하여 주고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 설계와 장치는 있어야 한다. 이는 행정의 선량한 의무라 할 것이다.

차체에 허술한 재해예방과 대응책에 대해 점검하고 재정비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딸의 염려를 잠재우고 싶다.

기고

어른들의 공로가 인정되고, 공경받는 시대



강 연호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보리밥마저 귀하고, 때론 고구마로 끼니를 때웠던 엇그제 같지만 한 어릴 적, 고등학교 다닐 때 까지 밥 대신 고구마로 도시락을 채웠던 일 때문에 나는 지금도 고구마 1개를 다먹지 못한다.

예전 ‘인간시대’란 TV프로그램에서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 방영된 적이 있다. 1960년대 말 집안이 너무 어려워 자녀들 중 딸을 스웨덴에 입양시켰는데 그 딸이 성장하여 어머니와 오빠를 찾은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다.

입양된 딸의 어머니와 오빠가 함께 나와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

던 중 오빠가 누이동생이 입양되기 전, 어느 날인가 배고픔을 못이긴 누이동생이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 먹다버린 토마토를 주워 먹는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도 그런 누이동생이 미워한참을 때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오빠는 성장하면서 그 때의 그 일 때문에 토마토를 먹지 못한다고 했다. 그 방송을 보면서 나는 오빠의 말에 공감했었다. 말로는 딱히 설명하기가 어려우나 나도 어릴 적 일로 인해 고구마를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두에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리 멀지 않았던 과거에 이처럼 먹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작년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어서고 세계적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불과 4·50여 년 전과 비교할 때 세상천지가 이렇게까지 달라진 원천은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 등 어르신들이 후손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무던히도 흘린 땀과 노력, 개척정신과 의지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르신들은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원천이며, 온갖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지역과 나라를 발전시켰으며, 인생의 값진 경험과 고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소외감과 함께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날이 갈수록 어른 공경심은 약해져 가기만 하고 있다.

부모없이 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부모가 길러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근원의 가치는 언제나 인정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어른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또한 내일이나 언제나 시대가 바뀌어도 당연히 존경 받아야 할 분이다.

가정의 달 5월, 어른들의 지나온 공로가 인정되고 공경 받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이길 소망해 본다. 그 책임은 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 생각한다.

시론

사랑, 님은 꿀 찾아가는 길



고 보선

제주산업정보대학사회복지과 교수

과연 남녀 간의 사랑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많은 학자들은 여러 실험과 이론들을 들어 남녀의 사랑은 서로 다르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차이 중 하나가 여성은 표현하는 사랑을 원하는 반면, 남성은

사랑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사랑이야? 라고 반문하는 남성은 없을까? ‘사랑은 내 인생의 일부뿐이야!’ 라고 말하는 여성은 이상한 것인가? 이렇듯 사랑에 대한 느낌과 특성, 그리고 행동이 다양한 것은 성차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모든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당신은 사랑을 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의 감정변화를 경험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하물며 상대방의 마음과 느낌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상대방을 존중하자

차이점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서로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만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다르다는 전제하에 더 많은 차이점들을 찾아내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의 공통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차이점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지만, 차이점을 좁혀나가는 노력이 없다면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계 속에서 차이점을 좁혀나가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 서로의 님은 꿀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다. 작은 몸짓이나 감정표현, 생각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사랑의 님은 꿀 찾기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자. 자신의 사랑의 언어와 표현방식 등을 살펴보고 상대방과의 님은 꿀을 찾아보자. 비슷한 사랑의 방식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 아마도 묘한 동질감을 느끼는 감동을 맛보게 될 것이다.

또한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려 애쓰지 말고 자신을, 상대방을 그대로 존중하도록 하자. 상대방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랑의 님은 꿀을 찾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차이점이 발견되더라도 자신과 다른 점을 고쳐 자신과 님은 꿀이 되도록 강요하지 말자. 상대방과의 차이점을 자신이 일방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랑의 님은 꿀 찾기는 서로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시어머니와 며느리, 친구, 직장동료, 상사와 부하직원, 스승과 제자, 여당과 야당, 선진국과 후진국 등 우리가 사랑의 님은 꿀 찾기의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사랑의 님은 꿀 찾기는 서로에 대한 잘못된 벽을 허물어 가는 좀 더 훈훈한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 그 힘의 중심에는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지원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복지환경 신속 대응 위한 법 필요”

최근 장애인 등록인구 증가로 인한 장애인 복지수요의 급증을 비롯해 소득, 장애정도, 사회참여 욕구 등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장애인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는 현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속에서 4월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장애인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본지는 발제자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4월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장애인복지법, 복지욕구·대상자 증가시 한계 정책·기본방향 등 장애인정책기본법에 담아야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존하는 법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법은 장애인복지법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장애인 정책의 큰 틀로서 장애인정책 기본계획과 제정마련 방안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 제·개정과 관련된 방안의 단초로 가장 ‘장애인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정책의 근본적 기본방향 및 장애인정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자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며 “갑작스런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복지욕구나 대상자가 증가했을 경우 대응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장애인정책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성발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을 예로 들며 장애인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야 할 주된 내용을 설명했다.

첫째, 여성발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은 모두 여성발전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계획에 대한 별도의 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법 전체 구성에서 제2장에 전면배치한

으로써 그 뒤에 자세하게 기술될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확정시키고 있다. 이는 여성발전 및 청소년육성이라는 법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1차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셈이며,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법에서도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1차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여성발전기본법의 경우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양성평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의 연장선에서 장애인정책기본법에서도 장애인지적(disability-sensitivity)관점이 반영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장애인지예산 도입이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두 개의 법 모두 여성이나 청소년 육성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발전기금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금의 사용처를 대상자의 권익증진, 시설 및 단체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정책기본법에도 반드시 장애인 정책 발전기금 조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두 개의 법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모두 관련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여성과 청소년의 경우처럼 관련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향후 장애인정책기본법에 반드시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김 교수가 제안한 장애인정책기본법의 개략적인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총칙)에는 목적, 기본이념, 국민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포함되고, 제2장(장애인정책기본계획)에는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정책 총괄 및 조정, 정책의 분석·평가, 장애인지 예산분석이 들어 있다. 제3장(장애인 정책의 기본시책)에는 고용·소득·의료·주거·일상생활·이동권 보장 등과 관련된 기본시책이, 제4장(장애인단체의 지원 등)에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자치법규와의 관계성이, 제5장(장애인정책 발전기금)에는 기금설치와 용도, 지방 장애인

정책 발전기금의 조성 등이 포함됐다.

김 교수는 장애인정책기본법이 장애인복지법보다 상위 규범으로 일반법에 해당하며, 장애인복지법은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큰 틀에서의 기본방향, 기본적인 정책의 내용 등은 장애인정책기본법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과 서비스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장애인정책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 또한 불가피하며, 장애인정책기본법과 중복되는 장애인복지법의 조항들은 장애인정책기본법으로 그 내용들을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시도는 ‘새 부대’인 장애인정책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정책기본법을

제정하는 데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1차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장애인정책기본법에 포함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2차적으로 장애인정책기본법의 제정 작업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재단 이석구 사무총장은 “법안 제·개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장애’의 존중과 수용”이라며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환경에 대한 도전이 장애인들의 역사이며 핵심내용”이라면서 “장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치의 변화가 법률 제·개정의 기본 가치와 지향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장애인정책기본법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장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치의 변화가 법률 제·개정의 기본 가치와 지향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89회 어린이날 기념식 어린이한마당

2011. 5. 5(목) 10:00~12:00
한라체육관

- 주 최 : 제주시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를 위한 기념일'입니다.

축하마당 (09:30~10:00)

- 바이올린 연주공연
- 국제가정문화원 바이올린교실 연주팀
- 댄스공연
- 다사랑지역아동센터,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용담지역아동센터
- 난타공연
-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기념식 (10:00~10:30)

- 국민의례
- 어린이헌장 낭독
- 유공자 시상
- 기념사
- 축사
- 격려사
- 어린이날 노래 제창

식후행사 (10:30~12:00)

- 놀이마당
- 투호, 링던지기
- OX게임, 훌라후프돌리기
- 림보게임, 세발자전거릴레이
- 판뒤집기
- 체험마당
- 페이스페인팅 - 펄비즈공예
- 족석 가족사진찍기 - 민속놀이(웃나와래!)
- 아트풍선 만들기 - 클레이 체험
- 웰빙꽃심기 - 삼색떡꼬치 만들기 체험

